

지식 · 정보 · 평생학습 커뮤니티센터로서의 대구공공도서관



글 | 권계순
한국도서관협회 이사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관장
queengs@korea.kr

올해는 1931년 랑가나단 박사가 “도서관은 성장하는 유기체이다(A library is a growing organization)”라고 언급한 ‘도서관학 5법칙(five laws of library science)’을 출판한 지 80주년이 되는 해이며, 우리나라 도서관과 사서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도서관의 참다운 철학을 제시한 랑가나단을 위해 기념 국제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대구의 공공도서관은 지난 2011년 3월에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된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이 일제강점 하에서 몸부림치던 1919년도에 ‘대구부립도서관’이란 명칭으로 개관한 이래 92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도서관학 5법칙’을 발표한 훨씬 이전 시기부터 랑가나단 박사의 근본이념을 실천해 온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인간에게 있어서도 한 생명체가 태어나기까지는 산모의 잉태기간 동안의 고난과 출산시 고통은 물론이고 산파역을 담당하는 이들의 노고 또한 여간 크지 않는다고 한다. 대구공공도서관은 대구지역의 교육·문화적 지식정보센터로서 중추적 산파 역할을 해왔다. 일제강점기의 민족적 어려움과 해방 후 사회적 혼란, 6.25 한국전쟁 등 여러번 어려운 환경을 겪는 과정에서 도서관이 휴관하는 시대도 있었고, 독립된 청사 없이 이곳저곳을 전전하면서도 곳곳이 대구지역의 정보제공기관으로, 지역사회 교육기관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구공공도서관의 변화를 2000년도 기준으로 그 양적 성장 측면에서 살펴보면, 장서 74%(1,266,869권→2,206,692권), 관외대출권수 254%(2,464,888권→6,268,422권), 디지털자료 2,341%(9,210점→215,639점), 디지털자료 이용자 910%(123,623명→119,887명→919,123명 1,211,915명), 평생학습강좌 수강생 2,736%(73종 5,641명→376종 159,993명)의 변화된 증가는 생각의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유기체임을 보여준다(자료: 도서관보 2000, 2011).

웹2.0의 사회적 변화와 동반하여 대구공공도서관이 진화해 온 질적 측면은 장서에는 RFID칩이 내장된 U-library 구현, 통합검색시스템, 무인대출·반납, 다양한 무선통신기기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쌍방향, 즉시성, 이

동성, 맞춤형, 개인화 유형의 정보 제공, 모바일 회원증, 독서통장, 다문화서비스, 북스타트, 독서마라톤, 인문학사업, 소외계층 독서문화 아웃리치 서비스, 학교도서관 MOU 협력 지원, 도서관축제, 평생학습 축제 등 지속적인 신사업 개발을 통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찾아오는 고객은 물론 잠재적 고객, 사이버 고객까지 끊임없이 진화하는 도서관의 모습을 구현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국가의 미래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자.”

우리가 봉사하고 있는 고객은 인터넷을 통해 문화를 수용하고 정보 습득 수준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보 또한 즉시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더 이상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과 면대면 접촉이 필요없는 환경 구축은 우리 사서들이 끊임없는 고객의 변화 요구에 숨이 가빠지게 한다. 더욱이 증세시대 서가에 쇠사슬로 묶여있었던 도서의 모습을 회상하면 현재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책이 즉, 정보가 날아다니는 것 같다.

이용자 만족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반면에 일부 반대편의 영역에서는 사서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위협하는 우울한 환경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도서관 업무의 아웃소싱 정책 개발, 도서관 운영의 민간위탁, 사서없는 학교도서관, 평생교육 기능의 비대칭 역할 확대, 비전문·비정규직의 사서업무 대체, 사서직 인원 감소 등 일련의 일들이 랑가나단의 기본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 도서관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도서관계는 사회의 변화와 고객이 추구하는 서비스 제공, 도서관이 직면하는 위기 요소와 함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크리코드와 고어만의 ‘도서관학의 새로운 5법칙(new five laws of library science)’을 지금의 디지털도서관 환경에 적용하여 지식 정보의 자유롭고 막힘없는 접근 제공과 도서관 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해 늘 진화하고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글을 쓰는 필자가 긴 시간 동안 도서관의 사회적 서비스 기능 확대, 서비스 품질 개선, 미래정보사회의 중심 도서관, 도서관의 스마트한 변화를 위해 끊임없는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게 된 연유는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공도서관 경영의 사상과 원칙을 근간으로 사서로서의 직업적 가치관 내재가 그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다.

랑가나단의 ‘도서관학 5법칙’ 발표 보다 더 앞선 시기부터 이념을 실천해 온 대구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와 가정, 외부기관, 단체 등과 연계된 네트워크 구축 확대를 통해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도를 높여 모든 연령대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지역주민들에게 독서의 즐거움과 행복한 독서의 기쁨을 제공할 것이다. 이를 위해 웹2.0보다 더 ‘참여, 공유, 개방’의 실천으로 지식·정보 및 평생학습 커뮤니티센터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적 제고를 위해 더 나아가야 할 것이다. 공공도서관은 국가의 미래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자. 